

# 학습공동체, 평생학습도시 실현

#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군산시, 모범노인 등 노인복지 유공자 표창·축하공연

군산시는 25일 군산월명체육관에서 1,200여명의 어르신들을 모시고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관·단체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노인의 날을 축하했다. 김임준 시장은 "어르신들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마련해 행사를 추진해준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장에 감사사를 전한다"며, "우리 사회 성공과 변화의 주인공이신 어르신들에게 깊은 존경의 인사와 함께 어르신들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시보건소,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헬기 운영

군산시가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응급환자 처치가 가능한 '하늘을 나는 응급실'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다.

군산시보건소는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전용 헬기(닥터헬기)인 계점 15개소(소수송공원, △새만금안 내소 주차장 △금강시민공원 △월명종합경기장, △호원대학교 남쪽운동장, △군산대학교 종합운동장, △군산구암초등학교, △군산국민체육공원, △개안도 닥터헬기 착륙장, △비안도 초등학교 운동장, △선유대교) 주차장 △어청도 해군헬기장, △군산해경항공대, △세아베스틸 운동장, △HHD현대인프라코어 운동장)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닥터헬기 인계점은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장비와 갖춘 헬기가 이·착륙하는 장소이며, 닥터헬기

는 '하늘을 나는 응급실'로 불리고 있다. 응급의학전문 의 등 응급의료인력이 탑승해 현장 및 이송 과정에서 직접 치료를 할 수 있어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최근에도 도서주민이 다리에 힘이 빠져 앞으로 넘어지면서 뇌진탕 증상을 보인 환자를 보건지소를 경유해 임시처치 후 전북 닥터헬기를 통해 대학병원으로 이송한 사례 등 응급환자의 생명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닥터헬기 이송대상은 중증외상환자, 심근경색, 뇌졸중 심뇌혈관 질환 등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로, 365일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 주간엔 운항하며 응급환자를 치료 중인 의사, 119소방, 122해경, 보건기관 및 지정 민간인(도서지역 이장단)이 할 수 있다. /군산=김판곤기자

## 익산시, 여권 발급 때 기존 여권 반납 '당부'

익산시가 여권 발급 시 기존 여권을 꼭 반납해, 분실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익산시는 여권 발급 시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지참해야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

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누적 분실신고 건은 604건으로 지난해 1년간 분실신고 386건에 비해 약 1.5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최근 여권 발급량의 급증과 코로나로 인해 여권 미 사용에 따른 분실 등으로 풀이된다.

시는 여권 발급 시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여권을 지참해야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

규여권을 수령할 때 기한 남은 여권을 반납해야 함을 적극 홍보 중이다. 이는 단순 미지참으로 인해 분실신고를 할 경우, 상습 분실자로 분류돼 출입국 심사 및 비자 발급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권을 5년 내 2회 분실 시 여권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제한되며, 5년 내 3회 또는 1년 내 2회 분실 시 유효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 또한 여권 발급 기간이 통상 10일 정도인 것과 달리 까다로운 신분 확인 절차를 위해 한 달 이상 소요된다. /익산=이재훈 기자

## 군산시,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성과공유회 추진

군산시는 지역 주민이 함께 모여 평생학습에 의한 배움을 토대로 행복한 지역을 만들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성과공유회가 오는 28일까지 농촌, 산업단지 및 원도심 지역 등 7개 지역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8일에는 조촌동 디오션시티 철길마을 공원에서 도심 할머니들이 바느질로 군산시 저출산 고령화 해법을 찾고 성과물을 영유아 보육시설인 모세스영아원에 기부하기 위한 '신생아 옷 만들기 성과공유회'를, 오는 28일에는 산업단지인 오식도동에서 다문화가족과 지역민들은 함께하는 '천연 화장품 만들기 체험 및 나눔 행복학습센터 자체성과공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성과공유회를 통한 수익금과 성과물은 전부 모세스영아원, 군산드림스타트, 노인종합복지관, 지역 불우 청소년들기 등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에는 총 254만원의 판매 수익금 전액과 나눔 물품을 기부한 바 있다.

시는 앞서 지난 6일부터 군산 7개 지역에서 실시 중인 행복학습센터 자체 성과공유회를 실시하고 있다. 농촌지역 대안에서 경로당 어르신들과 함께 농촌 환경 개선을 위한 경로당 내부 모스 벽화 만들기를 시작으로 원도심지역인 명산동에서 지역 주민 및 관광객과 함께 '서리태 콩두부 만들기 체험'을, 월명동에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골목 사진 전시회, 신영동 공설시장 입구에서는 시장 상인들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설시장 수목 해충 방지와 손잡 유지를 위한 '겨울 나무 옷 입히기'와 '업사이클링과 연계되는 군산시 관광상품 만들기 체험'의 나눔 행사를 실시해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산만의 찾아가는 평생교육 사업이다. 지난해 사업 참여자 설문조사 결과 84%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무엇보다 지역 주민 간 평생학습으로 소통과 화합이 이루어져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는 물론 공동체 강화에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김종필 교육지원과장은 "찾아가는 행복학습센터 성과공유회는 학습 성과를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전체 군산 시민과 나눔의 학습문화가 확산되어 소통, 협업과 함께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주민들이 모여 학습공동체를 이루고 생활에 도움되는 배움을 지역민들과 나누는 평생학습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 향후 학습형 일자리로 연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 주요업무 결산보고 청취

### 시정 성과 창출, 시민 삶의 질 향상 위해 역점사업 성공적 마무리 당부

지난 16일 익산시의회 제255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중영)는 18일부터 24일까지 부시장 직속(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을 시작으로 2개교(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 결산보고를 청취했다.

한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소길영 의원은 "하수관로가 정비되지 않은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1년 내 내 오·폐수로 인한 악취가 심각하고, 물이 차서 농사를 못 짓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생활하수 개선 확대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5일 동안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들은 각 부서별 2023년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에 관한 각종 질의와 제언을 이어갔다.

유재구 의원은 "2015년 준공 당시 유전생태습지공원의 기능은 하천 오염수를 생태습지가 정화하여 만경강으로 흘러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서 "공원이란 이유로 녹색도시관 리사업소에 업무 이관이 되었으나 본래의 기능을 되새겨보면 하수도파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중선 의원은 "하수도 악취 민원이 평화동 3킬프장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관련 예산을 세워서라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악취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은희 의원은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보급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민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일수록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리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동연 의원은 "기술보급과의 업무를 살펴보면 국화축제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이제는 기술보급과 본연의 업무인 농업관련 기술개발 및 기술보급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중영 위원장은 "관내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2건 연속 발생하였다. 익산시 소속 감리업체들의 나태함을 꼬집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결산보고 청취를 마친 산업건설위원회는 공직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면서 "시정 성과 창출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 역점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총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보건소, 무의도서 순회진료 서비스 제공

군산시 보건소가 의료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 주민들의 진료형평성 제고를 위해 무의도서 의료진원에 힘쓰고 있다.

무의도서 순회진료는 5개(방축도, 명도, 말도, 관리도, 두리도) 도서가 해당되며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이동진료팀이 매월 1회 도서지역을 방문하여 내과, 한방 진료를 실시하고 혈압, 혈당을 측정하며 일대일 개별 맞춤형 건강상담도 진행 중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바다를 삼의 터전으로 힘든 일을 해 온 어르신들이 대부분이어서 퇴행성 관절염이 많고 큰 일교차로 감기가 걸리는 분들이 많아 기약, 관절염약, 파스 등 상비약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소는 지난 3월부터 지금까지 770여 명의 도서지역 주민에게 진료와 건강상담을 실시, 오는 11월까지 실시 한다.

## 정현을 익산시장, 장모상 조의금 장학금 기탁

정현을 익산시장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쾌척했다.

익산시장장학재단 이사장을 겸임하는 정현을 시장은 25일 장모상 조의금 2000만 원을 장학금으로 써달라며 재단에 기탁했다.

정 시장은 힘든 순간 슬픔을 함께해 준 모든 이들에게 진심을 담아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재단에 기탁된 장학금은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다양한 장학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정현을 시장은 "보내주신 위로에 많은 힘을 얻어 그 사랑을 뜻깊은 곳에 나누고자 장학금을 기탁한다"며 "우리 지역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펼치는 밑거름으로 사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